

사람이 희망입니다.

KRIVET Issue Brief

2016

114호

발행인 이용순 |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계고 학생 비중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2015년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1만 3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19.0%를 차지함.
-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계고 학생 비중은 OECD 평균(49.1%)보다 낮은 16.7%로 최하위 수준이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지난 10년 간 중등단계 직업계고 학생 비중의 하락폭이 큼.
- 2015년 직업계고 입학 수요는 14만 7천 명(24%)으로 약 3만 1천 명의 초과 수요가 존재함.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고졸 수준의 기술·기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직업계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직업계고 비중 자체가 낮아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임.

- 직업계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초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직업계고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임.
 -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직업계고의 비중 자체가 낮아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노동시장의 고졸 인력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 비중의 국제적 비교 및 중장기적 변화를 살펴보고 직업계고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분석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2016)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통계 자료

- 분석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2016)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통계 자료
 - 지난 10년(2005~2014년)간 OECD 회원국의 중등단계 직업계고¹⁾ 학생 비중을 국가 간 비교 분석함.

| 각주 |

1) 직업계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직업계열)+일반고(직업계열)

02 중등단계 직업계고 학생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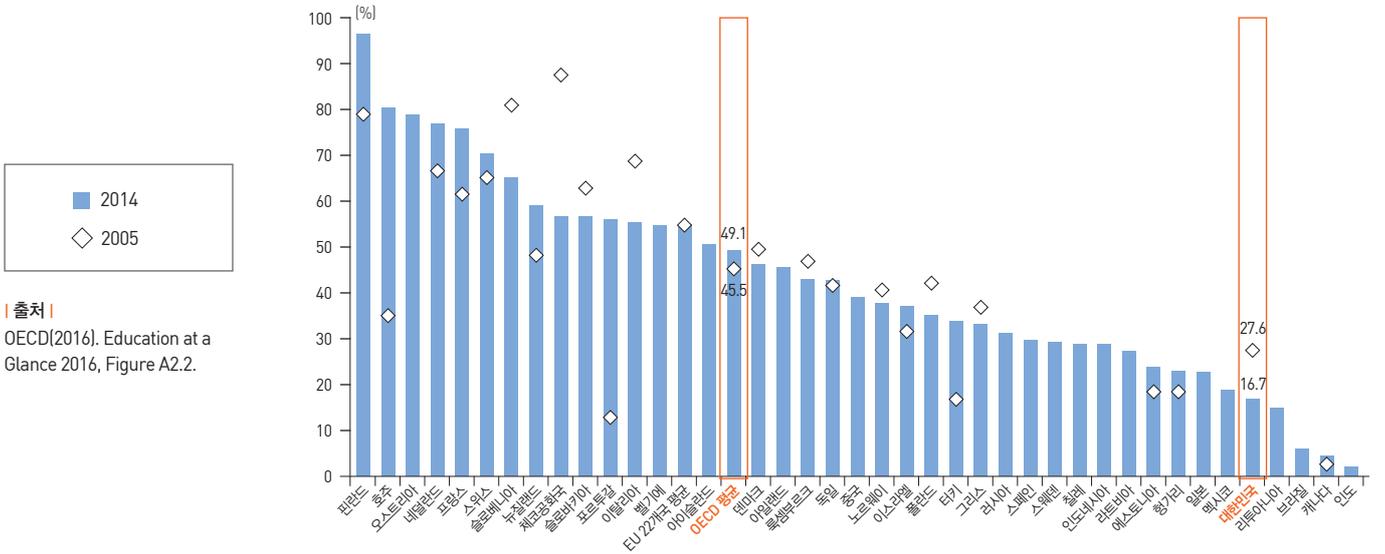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중등단계 직업계고 졸업생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하락폭이 크고, 전체 비중 역시 최하위 수준임.

- 한국의 직업계고 졸업생 비율은 16.7%로 OECD 평균(49.1%)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청년 실업률이 낮은 독일과 스위스는 직업계고 졸업생 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49.1%)을 상회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직업계고 비중이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추이를 보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혁·공유·소통·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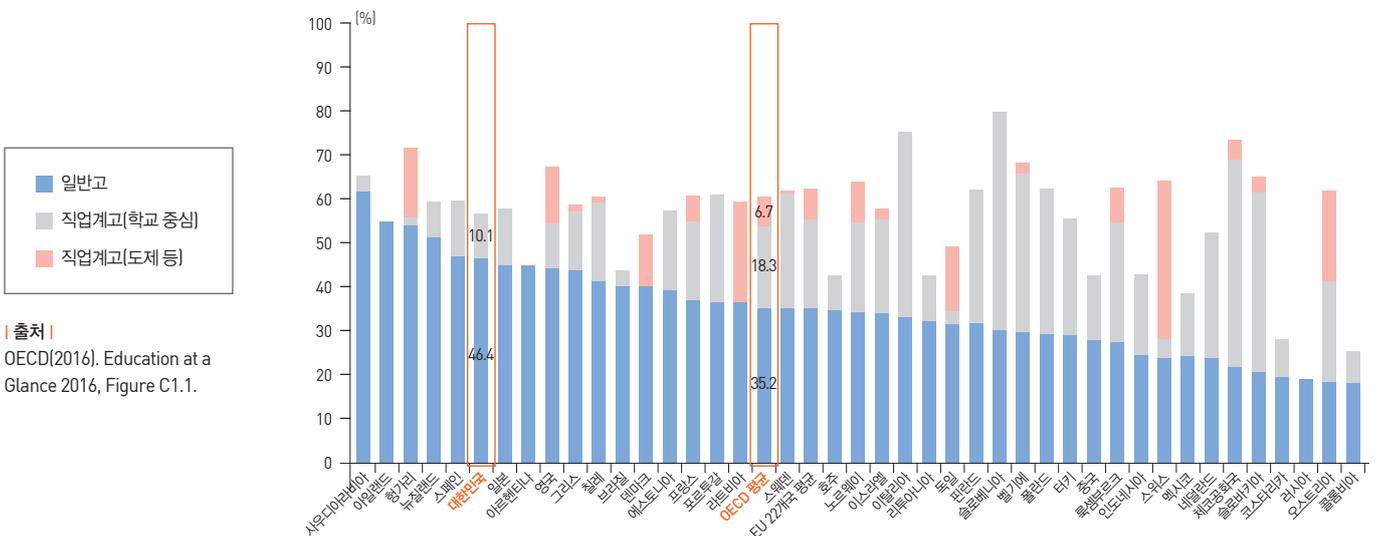
- 반면, 한국은 직업계고 졸업생 비율이 27.6%(2005년) → 16.7%(2014년)로 10.9%p 하락함.
- 이는 그간 한국의 직업계고 정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체제 개편 사업 등 취업을 제고와 같은 질 중심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의 성과가 인문계고 대비 직업계고 학생의 양적 비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그림 1] 중등단계 직업교육 졸업자 비중(2005, 2014)

한국은 직업교육의 다양성에서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한국은 전체 연령 대비 15~19세 청소년 비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나, 직업계고 입학 비율은 10.1%로 OECD 평균(2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도제 등 학교와 직장이 연계된 형태의 직업교육 입학률의 경우 2014년 기준 OECD 평균은 6.7%이나 한국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 한국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산업 현장과 결부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점차 이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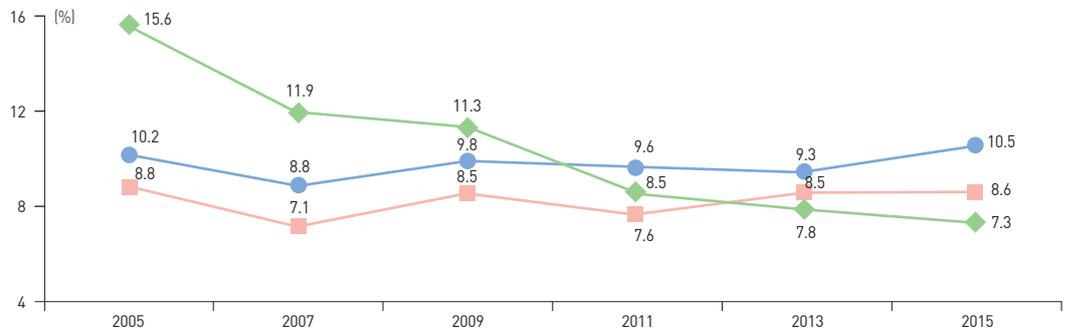


[그림 2] 15~19세 청소년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유형별 입학생 비율 국가 간 비교(2014)

- 2005년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15.6%로 한국의 10.2%보다 5.4%p 높았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 독일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국의 10.5%보다 3.2%p 낮은 7.3%를 기록함.
- 이는 독일의 도제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교육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출처 | OECD.Stat, Unemployment Rates by age and gender,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499#>에 2016년 12월 1일에 접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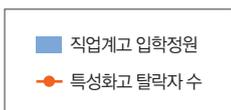
[그림 3] 한국, 독일 및 스위스 청년 실업률

03 직업계고 비중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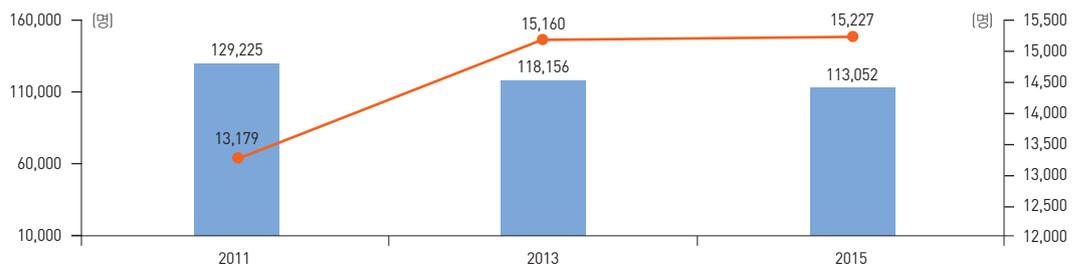
현재 직업계고 비중으로는 직업교육 진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1만 3천 명(19%)이나 입학 수요는 14만 7천 명(24%)으로 약 3만 1천 명의 초과 수요가²⁾ 존재함.
 - 최근에는 직업계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직업계고 탈락자 수가 13,179명(2011년) → 15,160명(2013년) → 15,227명(2015년)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반면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29,225명(2011년) → 118,156명(2013년) → 113,052명(2015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직업계고 진학에 대한 초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각주 | 2) 직업계고 탈락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희망자, 일반고→직업계고 전출자, 일반고 부적응 학업 중단자 등



자료 | KEDI 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그림 4] 직업계고 입학 정원 감소 대비 진학 초과 수요 미스매치 현상

산업계의 고졸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³⁾에 따르면 고졸 수준의 기술·기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직업계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4~2023년까지 고졸인력 대해 210만 명의 초과 수요가 존재함.

각주 | 3) 고용노동부(201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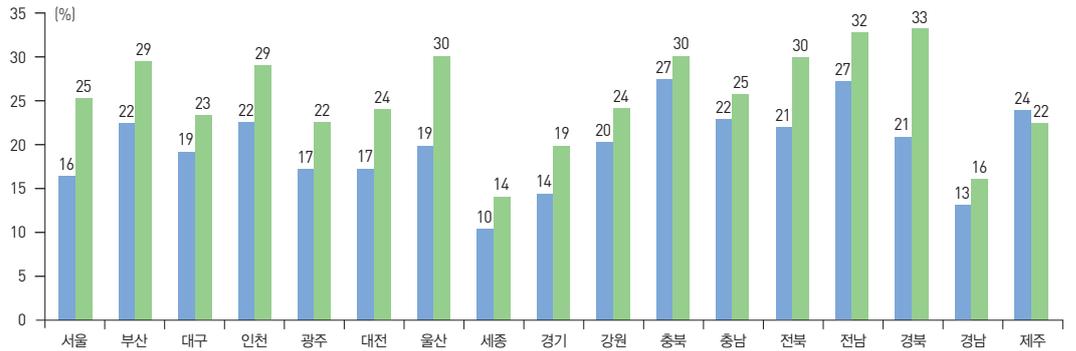
04 직업계고 비중 확대 방안

전국 평균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29%로 확대

- 교육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평균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9%로 확대하고자 함.
-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역 여건에 따라 직업계고 학급 수 증감, 직업계고로의 전환, 학교 통폐합·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출처 | 교육부(2016),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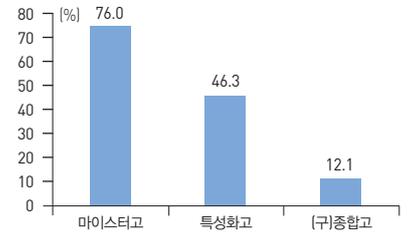


[그림 5] 시도별 직업계고 학생 비중 현황과 목표

농·산·어촌 지역 직업계고 활성화 지원 및 거점 특성화고 육성

- 직업계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고(직업계열이 설치된 일반고 포함)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16년 62개교에서 운영 중인 (구)종합고 전문학과 재학생의 졸업률은 80%이며, 졸업생의 취업률은 12.1%(특성화고 평균 46.3%)에 머물러 있음.
- 소규모 직업교육 수요를 거점 특성화고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거점 특성화고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 KEDI 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그림 6] 직업계고 유형별 취업률 현황

기존 직업계고의 학급 수 확대 및 신도시 개발 시 일반고와 균형을 맞춘 직업계고 신설

- 숙련 부족으로 인력 공급이 부족한 산업 분야⁴⁾는 1차 금속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순임.
- 입학 경쟁률이 높거나 숙련 부족으로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직업계고(학과) 위주로 학급 증설을 유도함.
 - 학교 내 여분의 공간 활용과 건물 증축 등을 통해 기존 직업계고의 학급 수를 추가 확보할 예정임.
- 신도시 개발 시 일반고 위주로 학교가 설립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 2009~2015년 경기도 고등학교 신설 승인 학교 총 49개교(총 정원 51,116명) 중 직업계고는 전무한 실정임.
-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신도시 개발(공공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각주 | 4) 박동열·김민규·안재영(2015), 중등 직업교육 규모 확대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5 시사점

- 고용률 제고와 청년 실업률 감소에 있어서 직업계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계고의 진학 수요와 산업계의 고졸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비중 자체가 낮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직업계고 입학정원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직업계고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 직업계고 활성화 지원 및 거점 특성화고 육성, 신도시 개발 시 일반고와 균형을 맞춘 직업계고가 신설되도록 해야 함.
- 지역 여건에 따라 직업계고 학급 수 증감, 일반고에서 직업계고로의 전환, 학교 통폐합·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직업계고 비중 확대와 함께 학생의 인성 함양, 기초학력과 직업기초능력 및 실무능력 제고,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직업계고 내실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 영 민(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 민 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강 서 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